

# 교차로

## 한일우호평화탑 건립10돌 기념법회연 태연스님



태연스님(재일본한민족불교도총연합회장)은 지난달 23일 일본 고리사에서 한일우호평화탑의 탑건립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한국에서 경신회(회장 최남익)를 비롯 권주불교연합회, 강릉 관음사 신도회 등의 불자 1백여명이 동참했다. 특히 경신회 회원들이 열가현도 다리국을 펼쳐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 비무장지대 평화탑 추진

태연스님은 대회사에서 "아직도 일본 전역에 2차대전때 희생된 30만~70만명의 한국인 희생자 유골이 수습되지 않고 있다"며 "남북이 공동위원회를 결성하여 이들 유골을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연스님은 일본내에 보현사 고려사등을 창건하여 20여년간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차대전 및 6.25사변으로 희생된 영가들의 현도를 위해 비무장지대에 평화의 탑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 '문화훈장' 수상

박승환스님(인간문화재 50호, 봉원사)은 지난 달 20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94 문화의 날' 기념 행사에서 문화훈장을 수상했다. 법패를 통해 한국문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수상하게 된 스님은 지난 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로 지정받은 후 약 1천2백명의 후계자를 양성 배출하며 법패 보급을 위해 헌신해 왔다.

## 득수수계식서 대중공양

원봉스님(일곡승가회 경인지부장)은 지난 10.18~11.1에 선암사 금강계단에서 실시된 제 18회 태고종 합동득수수계식에 참가한 후학 스님들에게 대중공양과 함께 승려로서 지켜야 할 예법 등을 지도하였다.

## 선서일이 서예전 개최

한영구씨(동국대 경주캠퍼스 출강)는 지난 달 27일부터 2일까지

백악에원에서 서예전을 가졌다. 이번 작품전에서는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등 선서일의 경지를 드러낸 최근작을 전시했다.

## 동남아 포교 마치고 귀국

송산스님(화계사 조실)은 홍콩 심가폴 등 35일 동안의 동남아 포교순례를 마치고 8일 귀국. 송산스님은 스리랑카 대통령과의 면담, 국영 TV와의 인터뷰, 대학 강연을 통해 한국불교를 소개했다.

## 불교과 학생에 장학금

광우스님(정각사 장학회)은 지난달 31일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과정 심원스님 인도철학과 석사과정 영본스님 선학과 4학년 법상스님 등 8명에게 총 2백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 법무부 종교위원 위촉

도정스님(천태종 명라사 주지)은 지난달 14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종교위원으로 위촉, 영동포교도소 송성홍소장으로 부터 위촉장을 전달했다.

## 이형기교수(동국대·한국시인협회)는 지난 1일 한국현대시인협회와 공동으로 제8회 '시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어려운 여건이기에 박금옥·인경자선생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더욱 새록새록 솟는다.

"밥집은 구조를 무엇으로 할까요?" "밥집요!" "보게끔요?" "강종강종요!" 서울 도봉구 미아 8동 소재 햇님어린이집(원장 박금옥)은 하루 종일 개구쟁이들의 목소리로 가득하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시간은 아침 7시 반. 이때부터 아이들의 엄마는 햇님어린이집 박금옥, 인경자 두 교사가.



## 대불청 신임 회장 이상번 씨

회장에 선출된 이상번 회장은 재정확립을 강조하고 대불청의 대외적

## "재정자립·대외적 위상 정립위해 노력"

위상정립, 만해 한용운 선사의 정신을 되찾아 새로운 불청문화건설, 지도자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3년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불청의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청인의

## 세계 Pen 대회 참석

김영숙씨(시인, 한·인 문화연구회)는 6일부터 12일까지 '관공과 비관공'을 주제로 제6회 프라하에서 열리는 제 61차 세계 Pen대회에 참석키 위해 지난달 31일 출국했다.

## '육당 시조문학상' 수상

이상범씨(시조시인)가 제 10회 육당 시조문학상을 수상했다. 진통적 서정에 현대적 일상을 조화시킨 시조를 쓰고 있는 이씨는 65년 단단이후 10여년의 시집을 냈다. 내년 봄에 는 자각 시조 50여편과 그 시조를 주제로 자신이 그린 동·서양화를 한데 묶어 시조집을 낼 계획이다.

## 태평무등 승무 공연

이명미씨(부산 해운대구 교사)는 무용공연에 오는 12일 오후 5시 부산 문화회관 중앙당에서 갖는다. 이명미씨는 태평무 살풀이 승무를 보여준다.

의 주인의식결여에 기인한다고 자체분석한 이 회장은 "21세기를 향한 불청인들의 의식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만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 "청소년 포교 힘써야"

문재부 장관상 수상 신진규 법사 "현재의 청소년은 미래사회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도할 지도자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어떻게 지도하는 가는 무척 중요한데 우리 불교는 지도자 교육에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문화체육부가 주최하고 청소년개발원이 주관한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교육 연수중 학생장으로 활동이 뚜렷하고 학업에 뛰어난 성적을 보여 지난 28일 수료시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신진규법사(문화산 청소년수련원장)는 1급 연수참석자의 대다수가 기독교 등 타종교인이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안타깝다고 토론했다.

"우리 불교에도 많은 청소년 지도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은 자격 취득연수에 참가해, 청소년포교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진규 법사는 이번 지도자 연수를 마친 참가자들을 주축으로 발족하는 청소년 지도사협의회 창립 준비위원장으로 창립준비에 여념이 없다.



## 내일을 여는 불자 김희경 (초계사합창단 지휘자)

"자 다시한번 입을 맞춰서 아주 부드럽게 불러봅시다." 지휘자 김희경씨의 지시가 떨어지자 마자 2백여 합창단원들의 입이 동시에 열렸다. "청산에 흐르는 물은 감을 이루고, 감을 이루는 한방울은..." 연습실 가득 돌아다니는 노래소리가 김희경씨의 손에서 다시 하나가 된다. 오는 5일 KBS홀에서 열릴 '불교음악의 향연' 공연을 앞두고 막바지 연습에 열중하고 있는 조계

## 조계·청계사 합창단 말아 지장보살 주제로 작곡 중

사 합창단과 지휘자 김희경씨의 모습이 사뭇 진지하기만 하다. 작년 2월 조계사 보음합창단의 지휘자로 부임해 활동해온 그는 중앙대 음대 작곡과를 나온, 몇 안되는 불교음악계의 젊은 일꾼이다. "모두를 조화롭게 하나로 이끌어 내는 것이 지휘자의 역할입니다." 라고 말하는 김희경씨는 한양대 박은성교수에게 오케스트라 지휘법에 대해 개인레슨을 받는 등 평소에도 공부하는 자세를 늦추지 않는 지휘자이다. "타종교에는 음악목사라는 것이 있어 합창단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하는 김씨는 "불교도 합창단 등의 활동을 통해 음성교사의 역할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것 울던 아이가 금세 울음을 멈추고 '삼촌!'하며 달려가 곁에

육안경자 선생에게는 든든한 후원자이다. "이제 이곳은 아이들만의 공간이 아닌 부모, 자원봉사학생 등 우리 모두의 공간이 되었어요. 우리 한 가족이요." 라는 두 교사는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들을 보다 더 좋은 여건속에서 보살피지 못하는 것이 가장 마음 아파요"라며 안타까워한다. 어려운 여건이기에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더욱 새록새록 솟아 하 무후후가 보람이라는 박금옥 인경자선생. '햇님어린이집'의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만난 부처님이 되는지도 모른다. (한영우 기자)

## 보살행이 숨쉬는 현장 햇님어린이집

진속에 햇님어린이집을 마련한지 벌써 3년. 뜻모은 친구 네명이 적립금을 마련, 은행 대출금으로 월세를 감당하고 최소한의 보육비만을 받기에 두 교사의 보수는 그야말로 쥐꼬리만하다. 이곳에 아이들을 맡기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봉

## 영세가정 아이들 따뜻한 보살핌에 "동심 활짝"

재, 가내수공업 등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마음은 있어도 어린이집에 대한 물질적 후원은 여의치 못한 형편이다. 두 교사는 슬물될 틈없이 바쁜 생활속에서도 석왕사와 서울불청에서 불교 청년회 활동을 하고 있을 정도로 신심깊은 불자들이기도 하다. 학자지절한 점심시간이 지나면

## 햇님어린이집

손, 발을 씻은 아이들은 두 교사의 노래소리속에 공속의 공주와 왕자를 만나러 간다. 하루중 가장 한가한 시간. 그렇지만 두 교사는 한겨울 때마다 자신들을 추스려 주는 불경을 읽으며 지친 정신을 가다듬는다. 또한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고 지도를 위한 아이

# 불교 성지순례

## 인도를 다녀오신 모든 이는 부처님의 미소를 닮아 있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룸비니)에서 성불(부다가야), 그리고 설법(사르나트)과 열반(쿠시나가르)까지 모든 수행과 성도의 현장을 직접 순례하시고 성불하십시오.

오랫 동안 부처님의 큰 뜻을 연구해 오신 오국근 교수님(인도 네루대학 교환교수, 한국·인도협회 부회장, 한국 불교 청년회장 역임, 현 동국대 교수)께서 전 일정을 동행하시면서 부처님의 큰 뜻을 전해 드릴 것입니다.

제 1일	12시 45분 대한항공 631편으로 방콕 출발
제 2일	방콕—카트만두(수웨이 앨버트, 리마불교 사원 참배)
제 3일	히말리야산(원승사 사원, 쿠미리 사원등 순례)
제 4일	카트 만두—룸비니 순례—소노올리
제 5일	소노올리-발람푸르(기원점사 순례)
제 6일	발람푸르—쿠시나가르(부처님 최후의 삶법지, 열반지, 화장터등 순례)
제 7일	쿠시나가르—바이살리(아난다 탑, 부처님 사리탑등 순례)
제 8일	파트나—리자기르(죽립점사 순례)—부다가야
제 9일	부다가야(마하보디 대탑)—사르나트(녹아원 참배)—바라나시
제 10일	바라나시(겐지스강 유람)—아그라
제 11일	아그라(타지마할, 아그라성당 순례)—보사힐
제 12일	보사힐—아진타 석굴—오랑가바드
제 13일	오랑가바드—엘로라—볼베이(비지 야경 관광)
제 14일	볼베이에서 06:00시 대한항공 806편으로 서울 출발

### 근 출발안내

- 제1차 순례: 12월 4일~12월 17일(신청마감일: 11월 19일)
- 제2차 순례: 1월 1일~1월 14일(신청마감일: 12월 17일)
- 제3차 순례: 2월 5일~2월 18일(신청마감일: 1월 21일)

### 근 동참금

₩ 2,190,000(신청금 포함, 여권인자대 별도)

### 근 신청금

₩ 200,000

### 근 수속 준비서류(인도·네팔 비자 포함)

- 여권미소지자: 주민등록등본 3통, 여권용 사진 8장, 주민등록증 인자대: ₩ 45,000
- 여권소지자: 여권, 주민등록등본 1통, 여권용사진 4장, 주민등록증 사본

\* 참가인원이 단체여행기준에 미달시 출발일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미소의 나라, 불교의 나라로.....	동참금: 655,000
<b>태국 5일</b>	출발일: 11/23, 30, 12/7, 14, 21, 28
· 일정: 서울—방콕—피타이—아유타야—방콕—서울	
생활 속의 불교를 보며.....	동참금: 1,400,000
<b>미얀마·태국 8일</b>	출발일: 11/18, 25, 12/2, 9
· 일정: 서울—방콕—양곤—파간—만달레이—양곤—방콕—서울	
부처님의 치사리를 친견하며.....	동참금: 1,070,000
<b>스리랑카 6일</b>	출발일: 11/25, 12/2, 9, 16, 23, 30
· 일정: 서울—콜롬보—아누라다푸리—폴론나루—시가리야—담팔라스크—겐디—콜롬보—서울	
중국 불교의 또다른 발자취	동참금: 645,000
<b>대만 5일</b>	출발일: 11/24, 12/1, 8, 15, 22, 29
· 일정: 서울—타이페이—고웅(불광사)—화롄—파이페이—서울	

\* 해외 여행 상담 및 여권, 비자 수속을 정성껏 대행하여 드립니다.

# 불교 성지순례 전문 (주) 아 테 관 광

지회는 이익금의 일부를 불우 이웃돕기 성금에 사용합니다. ☎ 732-3200(대)